

##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나온 『황사영 백서』 순교자 약전 인용 연구

김규성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부교수

1. 머리말
2. 다블뤼의 『황사영 백서』 인용과 입수
3. 『조선 순교사 비망기』와 『황사영 백서』의 비교 검토
4. 맺음말

### 1. 머리말

다블뤼(A. Daveluy 주교<sup>1)</sup>)는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기록을 남기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조선대목구 부대목구장 주교인 다블뤼는 대목구장인 베르뇌(S. Berneux) 주교로부

\* 본 논문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따라 수행한 연구임.

- 1) 다블뤼는 1818년에 프랑스 아미앵에서 태어났다. 1841년에 사제품을 받고 교구 사제로 활동하다가 1843년에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다. 1845년에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신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였고, 1857년에 조선대목구 부대목구장 주교로 임명받았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충남 보령 갈매곶에서 순교하였다. 참조: A. Daveluy,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유소연 옮김, (당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9.

터 순교자 자료 수집과 교회사 서술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였다. 다블뤼가 기록한 조선 천주교회사의 범위는 조선 천주교회의 시작부터 기해박해까지이다. 그 시기의 역사 기록에 있어 다블뤼가 남긴 문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다블뤼는 이러한 기록을 남기면서 기존에 있던 사료들을 충분히 참조하고 인용하였다. 특히 조선 신자들이 순교자에 대해 남긴 기록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다블뤼가 자료를 서술할 때 자신의 조선 입국 이전에 나온 『기해일기』를 인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다.<sup>2)</sup>

그런데 신유박해 서술에 있어 다블뤼가 참조할 만한 조선 내의 순교자 약전은 『黃嗣永 帛書』이다. 다블뤼는 신유박해를 전후한 시기의 순교자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황사영 백서』뿐만 아니라 「이순이 루갈다의 편지」, 『벽위편』, 『죄인 지출일기』, 수집 가능한 관한 자료, 순교자 이야기가 들어간 관련 서한 등을 폭넓게 활용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료는 『황사영 백서』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다블뤼는 『황사영 백서』에 나온 순교자 약전의 내용을 충분히 참조하고 인용하였다.

교회사적 가치를 가진 사료로 평가받고 있는 『황사영 백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는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황사영 백서』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이 문서가 순교자 약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조명한 연구 성과가 있다.<sup>3)</sup> 『황사영 백서』의 원본과 이본을 비교 분석하여 사료로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밝힌 연구 성과도 있다.<sup>4)</sup> 황사영의 생애에 대해 다룬 사료를 재조명하면서 황사영이 순교자 약전을 쓴 의도와 그가 가진 순교에 대한 인식을 밝힌 연구 성과도 있다.<sup>5)</sup> 하지만 『황사영 백서』를 주요 인용 사료로 활용한 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없다. 물론 신유박해에 대한 다블뤼와 달레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 성과는 있다.<sup>6)</sup> 하지만 신유박해 주요 순교자 약전이라 할 수 있는 『황사영 백서』를 다블뤼와 달레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다루

2) 김규성, 「다블뤼의 기해박해 서술 연구: 기해일기 보완 작업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3(2018, 12), 121-161.

3) 정두희, 「황사영 백서의 사료적 성격」, 『신유박해와 황사영 백서 사건』, 한국순교자선양위원회 편,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11-34.

4) 여진천, 「황사영 백서 이본에 대한 연구」, 『교회사연구』 28(2007, 6), 5-29.

여진천, 『황사영 백서 연구: 원본과 이본 비교 검토』,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5) 김수태, 「황사영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사료 재조명」, 『황사영의 신앙과 영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131-193.

6) 김정숙, 「신유박해에 관한 프랑스어 자료 분석」, 『신유박해 연구의 방법과 사료』, 한국순교자선양위원회 편,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331-440.

지는 않았다.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항에 대한 연구 성과는 있다.<sup>7)</sup> 그러나 서지적 사항에 집중하였으며 순교자 서술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다블뤼가 인용한 한문본과 프랑스어 번역본 사이에 순교자 서술 비교 작업을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 *Note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를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sup>8)</sup>를 인용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를 입수한 과정과 인용한 이본에 대해 기존 연구 성과에 나온 바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황사영 백서』에 나온 순교자 서술과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인용한 순교자 서술을 비교해 보며 다블뤼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자료를 인용하였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다블뤼의 『황사영 백서』 인용과 입수

『황사영 백서』는 순교자 전기로 볼 수 없는 기록이다. 이 문헌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박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헌 중 48.5% 정도의 분량이 순교자들의 약전이다.<sup>9)</sup> 더구나 순교자 약전 앞에 있는 신유박해 과정에 대한 서술 분량까지 합하면, 『황사영 백서』 안에 있는 교회사 서술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물론 『황사영 백서』의 순교자 약전 성격에 대해 단순한 약전이 아닌 주문모 신부의 체포와 순교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문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주문모 신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새로운 성직자 영입을 하려는 것이 저술 동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sup>11)</sup> 『황사영 백서』 자체가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천주교회를 도와달라는 청

7) 조현범, 「황사영 백서 불역본에 관한 연구」, 『교회사학』 12(2015), 213-245.

8) 본 논문에서 인용한 『황사영 백서』 한문 원문은 여진천이 역주한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에 나온 것이다. 역주자는 황사영 백서의 원문을 ‘황사영 백서’ 김영수 옮김, 성황석두루가서원, 1998’에서 역자의 허락을 받아 인용하였다고 밝혔다. 참조: 황사영,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진천 옮김, (서울: 기쁜소식, 1999), 10.

9) 여진천, 『황사영 백서 연구』, 101.

10) 김수태, 「최양업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연구」, 『교회사학』 10(2013), 88.

11) 김수태, 「황사영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사료 재조명」, 174-175.

원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견해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황사영 백서』가 가지는 순교자 약전 성격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 비록 주문모 신부 중심으로 서술했다 하더라도 동시대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황사영 백서』는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청원서의 성격과 순교 기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문헌이다. 그런데 『황사영 백서』는 결과적으로 외부에 조선 순교자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데에는 실패하였다.<sup>12)</sup>

『황사영 백서』가 작성 당시에는 순교자 약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다하더라도 후대에 많이 활용한 자료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인용하여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한 이가 다블뤼 주교이다. 그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저술하면서 『황사영 백서』에 대해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소중한 자료라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다.<sup>13)</sup> 이는 그가 조선 순교자 이야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블뤼가 이 자료를 인용한 사항과 입수한 경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사영 백서』가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 밝혀 놓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는 박해 이후의 조선 천주교회 상황 보고와 신앙 자유 획득 방안을 제시한 84행부터의 기록만 다루고 있다. 즉 『황사영 백서』의 후반부만을 다루며 전반부에 해당하는 순교자 약전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sup>14)</sup> 그런데 순교자 약전을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았다. 후반부처럼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더라도, 간접 인용하여 본문에 기록하였으며, 이것이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이다.<sup>15)</sup> 그런데 이 연구는 주로 달레의 『조선 천주교회사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를 중심으로 『황사영 백서』의 인용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만을 따로 떼어서 파악한 연구 성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 놓은 바를 바탕으로 하여 다블뤼 기록과 달레의 책에 같이 인용한 『황사영 백서』의 순교자 약전 내용은 다음의 표에 나와 있다.

12)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16.

13) Archiv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이하 A-MEP), *Mgr Daveluy Vol. 4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f. 179;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이하 Daveluy 4); 『순교사 비망기』(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문화위원회, 2012), 187.

14) 여진천, 『황사영 백서 연구』, 419-427.

15) 최석우, 「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과정」, 『교회사연구』 3(1981), 137-138.

<표 1> 『황사영 백서』 순교자 약전 인용 부분<sup>16)</sup>

인용 내용	조선 순교사 비망기	달레의 조선 천주교회사 <sup>17)</sup>
최창현 요한(32-33행)	f. 47	p. 68
명도회 창설(20행)	f. 86	pp. 80-81
강완숙 골롬바(68행)	f. 63	p. 81
정조 임금의 입장(13-14행)	f. 68	p. 83
신유박해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17-19행)	ff. 87-89	pp. 109-110
최필제 베드로와 오현달 스테파노(22-23행)	f. 95	pp. 113-114
박해의 확대(14-17행, 24-30행, 34행)	ff. 93-101	pp. 114-116
정약종 아우구스티노(35-39행)	ff. 103-108	pp. 117-119
홍교만 프란치스코(40-41행)	ff. 107-108	p. 120
이중배 마르티노(8-9행)	f. 80, ff. 90-91	pp. 128-129
조용삼 베드로(70-71행)	ff. 83-84, f. 91	pp. 130-131
이중배 요한의 순교(9-11행)	ff. 90-91, f. 115	pp. 132-133
조용삼 베드로의 순교(72-73행)	f. 114	p. 135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체포(77-80행)	ff. 116-118	pp. 142-143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순교(80-83행)	ff. 126-129	pp. 146-148
김건순 요사팻(54-64행)	ff. 132-140	pp. 150-157
강완숙 골롬바의 순교(68-69행)	ff. 140-143	p. 158-159
홍필주 필립보(64-65행)	f. 154	p. 159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달레는 『황사영 백서』의 순교자 약전 부분을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서 간접 인용하였다. 그런데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는 백서를 인용하였다는 확실한 각주 표시가 없다. 달레의 책에 황사영의 기록을 인용하였다는 언급이 위의 표에 나온 사례 중 4건에 나온다. 최창현 요한에 대한 이야기, 명도회 창설 이야기, 정조 임금의 입장에 대한 설명, 신유박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기 전에 황사영의 기록에서 인용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즉 달레의 책만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4건 만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인용하였다는 흔적이 없이 참고 자료로 활용한 흔적만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보면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의 어떠한 부분

16)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66-67.

17) Charles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1, Paris: Librairie Victor Palme, 1874.

을 직접 인용하였는지 간접 인용하였는지가 드러나 있다. 다블뤼는 황사영의 기록을 직접 인용한 경우에 그 구절을 따로 떼어 표기하였다. 그리고 간접 인용한 경우에도 황사영이 언급하였다는 표현한 부분이 있다.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나온 『황사영 백서』의 인용 사항 특히 직간접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황사영 백서』 순교자 약전 인용 방식

인용 내용	다블뤼 비망기	황사영 백서	인용 방식
최창현 요한	f. 47	32-33행	직접
강완숙 골롬바	f. 63	68행	간접
정조 임금의 입장	f. 68	13-14행	직접
이중배 마르티노	f. 80, ff. 90-91	8-11행	직접, 간접
조용삼 베드로	ff. 83-84, f. 91	70-71행	직접, 간접
명도회 창설	f. 86	20행	직접
신유박해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	ff. 87-89	17-19행	직접
박해의 확대	ff. 93-101	14-17행, 24-30행, 34행	간접
최필제 베드로와 오현달 스테파노	f. 95	22-23행	간접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ff. 103-108	35-39행	직접, 간접
홍교만 프란치스코	ff. 107-108	40-41행	간접
조용삼 베드로의 순교	f. 114	72-73행	직접, 간접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체포	ff. 116-118	77-80행	직접, 간접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순교	ff. 126-129	80-83행	간접
김건순 요사팻	ff. 132-140	54-64행	간접
강완숙 골롬바의 순교	ff. 140-143	68-69행	간접
홍필주 필립보	f. 154	64-65행	간접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를 인용한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최창현 요한에 대한 이야기, 명도회 창설 이야기, 정조 임금의 입장에 대한 설명, 신유박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블뤼가 직접 인용하였다. 나머지 순교자 약전 부분은 간접 인용하였다. 그런데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점은 간접 인용한 가운데에서도 일부 직접 인용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다. 17건의 인용 사례 중 앞에

언급한 4건은 완전히 직접 인용한 데에 비해 5건의 순교자 약전 인용 사례에서는 간접 인용한 중에 직접 인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블뤼는 이증배 마르티노에 대한 약전을 인용할 때 간접 인용을 하면서도 황사영이 서술한 바를 참조하였음을 간단하게 표기하였다. 황사영의 서술을 간접 인용하였다는 부분은 김건순이 이증배의 의술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이증배가 자신의 의술보다 신앙을 더 강조한 증언이 나온 부분이다.<sup>18)</sup> 그러한 서술이 나온 이후에 감옥의 관리가 이증배로부터 감화를 받아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직접 인용하였다.<sup>19)</sup>

다블뤼는 조용삼 베드로의 약전을 간접 인용하면서 황사영이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용삼이 정약종의 문하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부분<sup>20)</sup>은 직접 인용하였다.<sup>21)</sup> 조용삼의 순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순교 사실에 대해 간접 인용하면서 그가 하늘에는 두 천주가 없고 사람에게에는 두 마음이 없으므로 한 번 죽는 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sup>22)</sup>만 직접 인용하였다.<sup>23)</sup>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약전의 경우 간접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직접 인용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sup>24)</sup> 다블뤼가 긴 분량을 할애하여 직접 인용한 부분은 정약종이 가진 열렬한 신앙과 박식한 교리 지식을 비롯하여 『주교요지』를 저술한 사실이다.<sup>25)</sup>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박해에 쫓기다가 관아에 자수하고 투옥한 과정을 다루는 부분을 간접 인용하면서 그가 서양 사람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난 부분<sup>26)</sup>에 대해서는 『황사영 백

18) *Daveluy* 4, ff. 90-91; 『순교사 비망기』, 87.

19) 獄卒一人 動心信從 亦爲熱心之人(『黃嗣永帛書』, 11행), 황사영,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24.

20) 遊學於丁奧斯定之門 奧斯定獨稱其大熱心(『黃嗣永帛書』, 71행), *Ibid.*, 102.

21) *Daveluy* 4, ff. 83-84; 『순교사 비망기』, 79.

22) 天無二主 人無二心 一死之外 蕪辭(『黃嗣永帛書』, 72-73행), 황사영,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103-104.

23) *Daveluy* 4, f. 114; 『순교사 비망기』, 114.

24) *Daveluy* 4, ff. 103-108; 『순교사 비망기』, 101-105.

25) 拙於俗論 而取喜講論道理 雖當疾病飢乏之時 若不知其苦者然 或不明一端道理 則寢食無味 全心全力而思之 必至融通而後已 雖在馬上舟中 總不斷默想之工 見有愚蒙者 盡力訓誨之 至於舌疲喉痛 而少無厭倦之意 雖甚愚鹵者 鮮有不明 嘗爲教中愚者 以東國諺文 述主教要旨二卷 博採聖教諸書 參以己見 務極明白 愚婦幼童 亦能開卷了然 無一疑晦處 繫於本國 更勝於芻蕘 神父准行之 積年宿學 習與性成 每見教友 寒暄之外 卽陳講論 終日娓娓 無暇旁及他談 或得自己所未通者一二端 則滿心歡喜 稱讚不已 或有冷淡糊塗者 不肯聽講 則不勝缺然 悶然之意 仁問各端道理 如探囊取物 不煩思索而滔滔不竭 反覆辨亂 未嘗少窮 所言皆排比次序 無或錯亂 而精奇超妙 詳細的確 固人之信 熾人之愛 雖德望不及冠泉 明理過之(『黃嗣永帛書』, 36-38행), 황사영,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55-58.

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였다.<sup>27)</sup>

이렇듯 다블뤼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황사영 백서』를 대부분 간접 인용하면서 강조할 부분은 직접 인용하였다. 다블뤼가 직접 인용한 부분은 순교자가 가진 강한 신앙심이다. 동시에 순교자에게 영향을 준 인물도 직접 인용을 통해 부각시켰다. 이중배, 조용삼, 정약중에 대해 직접 인용한 부분에 그러한 강조점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다블뤼는 『황사영 백서』를 인용하면서 어떤 본을 참고 자료로 삼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다블뤼 주교가 알브랑(Albrand) 신부에게 보낸 1859년 9월 서한」에서 황사영이 쓴 긴 편지를 입수하였음을 언급하였다.<sup>28)</sup> 이 편지에서 황사영의 편지를 발견했다는 대목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나는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더 이상 박해가 없도록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한 계획과 요구가 나오기 전에 순교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담긴 황 알렉산드르의 긴 편지 사본을 입수하였습니다.<sup>29)</sup>

이 편지를 통해 다블뤼가 1859년 여름에 『황사영 백서』를 새로 입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기존 연구가 이미 밝혔다.<sup>30)</sup> 이어서 다블뤼가 입수한 이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즉 『황사영 백서』 이본 중에서 『동린록(東麟錄)』 소재 「사적 사영백서(邪賊 嗣永帛書)」라고 비정(批正)하였다.<sup>31)</sup> 당시 원본을 찾을 수 없던 상황에서 다블뤼는 노론 측에서 작성된 이본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기존 연구는 다블뤼 『조선 순교사 비망기』 이전에 나왔던 『황사영 백서』의 프랑스어 번역본<sup>32)</sup>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것이 『황사영 백서』의 이본 중 『동린록』 소재 「

26) 只鎖兩足 不可刑訊 在獄之時 文字問答甚多云 而皆不得見 但聞外教傳言 自首者 自稱西洋人 先受六人之死 論以逆律 神父自現之後 都民相傳 西士在獄 辨明天主教人之非逆賊 又傳 西士不肯就死 盡說自己所欲言者 然後方請受死 此等傳說 似不虛矣(『黃嗣永帛書』, 79-80행), 황사영, 『누가 저회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111-112.

27) Daveluy 4, ff. 116-118; 『순교사 비망기』, 117-118.

28) 조현범, 「황사영 백서 불역본에 관한 연구」, 231-232.

29) A-MEP, *Mgr Daveluy Vol. 6 Lettres à des membres de la Ste des ME*, f. 6-0037.(내포교회사연구소 판독본, 이하 Daveluy 6)

30) 조현범, 「황사영 백서 불역본에 관한 연구」, 232.

31) Ibid., 238.

32) A-MEP, Vol. 577, ff. 121-136; 『A-MEP, Vol. 577 Corée 1797-1860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문화위원회, 2010), 1-24.



사적 사영백서』와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황사영 백서』의 프랑스어 번역본의 출처에 대해서는 다블뤼가 역사 관련 증빙문서로 보낸 자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파리외방 전교회 본부에서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관계 문서철 577권에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3)</sup>

그렇다면 『황사영 백서』의 번역본과 『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인용 부분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 사항이 나올까? 다음 표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와 그 이전에 나온 『황사영 백서』의 프랑스어 번역본의 페이지 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3> 다블뤼 『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황사영 백서』 순교자 약전 프랑스어 번역본 사항

인용 내용	다블뤼 비망기	백서 프랑스어 번역본
최창현 요한	f. 47	f. 126
강완숙 골롬바	f. 63	ff. 129-130
정조 임금의 입장	f. 68	f. 122
이중배 마르티노	f. 80, ff. 90-91	ff. 121-122
조용삼 베드로	ff. 83-84, f. 91	f. 130
명도회 창설	f. 86	f. 124
신유박해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	ff. 87-89	f. 123
박해의 확대	ff. 93-101	ff. 123-126
최필제 베드로와 오현달 스테파노	f. 95	f. 124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ff. 103-108	ff. 126-127
홍교만 프란치스코	ff. 107-108	없음
조용삼 베드로의 순교	f. 114	f. 130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체포	ff. 116-118	ff. 131-132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순교	ff. 126-129	ff. 132-133
김건순 요사팻	ff. 132-140	ff. 127-129
강완숙 골롬바의 순교	ff. 140-143	ff. 129-130
홍필주 필립보	f. 154	f. 129

그런데 『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인용 내용과 『황사영 백서』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나온 홍교만 프란치스코에 대한 약전이 종래에 나온 프

33) 조원범, 「황사영 백서 불역본에 관한 연구」, 230.

랑스어 번역본에 없다. 실제로 『동린록』 소재 「사적 사영백서」에도 홍교만에 대한 약전이 없다.<sup>34)</sup> 홍교만의 경우 당시 다블뤼가 입수하지 못했던 원본에는 나오지만 이본 중에는 「邪學罪人 嗣永等 推案」에 나온 『황사영 백서』 이본에 나와 있다.<sup>35)</sup>

아마도 다블뤼가 일부 입수한 관찬 기록을 통해 홍교만에 대한 서술 부분을 찾은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다블뤼는 『조선 순교자 약전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 말미에 그가 입수한 결안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sup>36)</sup> 그 안에 홍교만과 황사영의 결안도 있다. 비록 그 결안 안에 백서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블뤼가 조선 측 관찬 기록에 나온 『황사영 백서』의 이본을 입수한 것은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순교자 약전』의 결안 인용 첫 부분에 다블뤼가 관찬 자료를 입수하고 번역한 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이 나라의 관례에 따라 한문으로 작성된 이 판결문들 안의 어떤 문장들은 대단히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불러왔으나, 그들 모두는 우리에게 몇 대목을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사건의 정확성에는 그다지 전념하지 않는 서기들이 작성하는데, 그 당시의 서기들은 오로지 선고문에 천주교와 피고인들을 모욕하는 표현들을 많이 넣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고문들이 별로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선고문의 형식과, 사형수에게 서명을 하게 한 관례로 미루어보아 모든 진술은 사형수의 입을 통해서 진술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장들은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상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그 문장들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었다. 우리가 입수한 조보는 단지 선고문의 핵심적인 부분만 필사된 것이다.<sup>37)</sup>

위의 서술을 통해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한문 자료를 번역할 때 조선 신자들의 도움을 받았음이 드러나 있다. 승정원에서 나온 조보를 다블뤼가 입수할 수 있었음도 조선 신자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조보를 입수한 상세한 과

34) 여진천, 『황사영 백서 연구』, 291.

35) Ibid., 190-191.

36) A-MEP, *Mgr Daveluy Vol. 5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 Pièces justificatives de l'histoire des martyrs Sentences de mort*, ff. 1-35; 『조선 순교자 약전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문화위원회, 2012), 229-272;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유소연 옮김, (당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356-415.

37) *Daveluy* 5, f. 1; 『조선 순교자 약전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229;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356-357.

정과 번역에 참여한 신자들이 누구였는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다블뤼가 순교자 약전을 서술하는데 있어 자료 입수와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황사영 백서』의 입수와 번역 및 인용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홍교만의 약전을 서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충분히 인용하였음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역시 다블뤼가 입수한 『황사영 백서』의 이본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도 나타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입수한 이본이나 프랑스어 번역본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홍교만에 대한 서술에서와 같이 조선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입수한 관찬 자료를 통해 번역하고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의 이본을 전해 준 신자의 이름과 입수한 정확한 시기는 기존의 기록이나 연구를 통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블뤼가 조선 신자들의 도움으로 『동린록』 소재 「사적 사영백서」라는 이본뿐만 아니라 관찬 기록에 나온 이본까지 입수한 것은 분명하다.

다블뤼는 신유박해 당시 순교자들의 약전을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에 나온 순교자 약전의 내용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였다. 17건의 인용 사례 중 4건은 직접 인용한 데에 비해 5건은 간접 인용한 중에 일부분을 직접 인용하였다. 다블뤼는 조선 교회 신자 측이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해 기록한 거의 유일한 약전의 형태를 지닌 『황사영 백서』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였다. 비록 원본을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이본 형태의 문서를 접하였으며 프랑스어 번역본도 병행하여 『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신유박해 순교자 서술에 참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조선 순교사 비망기』와 『황사영 백서』의 비교 검토

『황사영 백서』의 순교자 약전은 황사영이 서울을 탈출하는 1801년 2월 15일까지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며, 이후의 내용들은 김한빈과 황심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그가 작성한 순교자 약전은 그 당시 순교자들의 행적과 교회의 활동을 알려 주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박해시대 순교자들의 신앙 입증 자료이며, 박해시대 교회의 실상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 문헌을 그 당시 순교자들의 행적과 교회의 활동을 알려 주는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박해시대 순교자들의 신앙 입증 자료이며, 한국 최초

의 천주교 순교 전기 또는 수난기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sup>38)</sup> 결국 이 서한 자체는 박해를 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과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기에 1차 자료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이 사료는 1차 자료의 성격을 가졌기에 이본이라도 입수한 다블뤼가 순교자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인용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앞 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블뤼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폭넓게 인용하였다. 직접 인용한 경우 백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간접 인용한 경우에는 다블뤼가 일부 추가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자료의 내용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황사영 백서』를 인용한 내용 비교와 추가 사항 파악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황사영 백서』 인용 방식과 추가 사항

인용 내용	인용 방식	비망기의 내용 추가 및 누락 사항
최창현 요한	직접	없음
강완숙 골롬바	간접	강완숙 집의 유리한 점 소개
정조 임금의 입장	직접	없음
이중배 마르티노	직접, 간접	배교의 유혹을 받은 부분을 추가
조용삼 베드로	직접, 간접	조용삼이 배교했다가 회심하는 이야기 확대함
명도회 창설	직접	없음
신유박해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	직접	없음
박해의 확대	간접	없음
최필제 베드로와 오현달 스테파노	간접	최필공의 체포일자가 다르게 나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직접, 간접	정약종의 가족 관계 추가 안정복의 반박을 소개함
홍교만 프란치스코	간접	행적을 확대하여 설명
조용삼 베드로의 순교	직접, 간접	순교 이후 일어난 기적 현상 소개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체포	직접, 간접	없음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순교	간접	조선 측의 결안을 소개
김건순 요사팻	간접	정약종과의 공동 저술 작업 소개
강완숙 골롬바의 순교	간접	순교 과정에서 영웅적 모습 부각
홍필주 필립보	간접	없음

3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2』,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65-67.

39)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66-67.

다블뤼가 이 자료를 통해 인용 서술한 순교자의 수는 14명이다. 전체 신유박해 순교자수와 비교 해본다면 인용 서술한 순교자 수가 많지는 않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블뤼는 중요한 순교자의 약전을 『황사영 백서』를 통해 찾아 서술하였다.

다블뤼는 『황사영 백서』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여 순교자 이야기를 서술할 때는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 『황사영 백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하였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간접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 얻은 이야기도 일부 추가하여 서술하였다. 물론 주문모 신부의 체포에 대한 서술과 홍필주 필립보의 약전을 서술할 때는 『황사영 백서』 밖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사영 백서』의 순교자 약전을 간접 인용하였을 때,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간략하게 나온 내용을 확대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강원숙의 삶과 순교에 대한 약전을 서술할 때 『황사영 백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미 나온 내용을 확대하여 서술한 흔적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당시 조선의 법에 반역의 죄를 제외하고는 양반 규수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역할을 한 점을 추가하여 서술하였다.<sup>40)</sup> 한편 황사영은 강원숙의 순교 과정에 대해 다소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나, 다블뤼는 강원숙에 대한 서술 내용을 더 확대하였다. 특히 체포된 양아들인 홍필주를 격려하는 장면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며 감옥 안에서 보여준 강원숙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sup>41)</sup>

이중배의 순교 과정을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에 없는 배교의 유혹 부분을 추가하였다. 다블뤼는 이중배가 아버지로부터 효를 위해 배교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과정을 서술하였다.<sup>42)</sup> 더 큰 부모인 천주에 대한 공경을 우선시하는 당시 순교자들의 모습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용삼의 약전을 서술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미 배교한 아버지의 회유로 배교하고 풀려났다가 회심하여 다시 감옥에 간 과정을 확대하여 서술하였다.<sup>43)</sup> 물론 그 내용이 『황사영 백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더 상세히 설명하여 강조하였다.

조용삼의 순교에 대해 서술할 때 『황사영 백서』에 나온 그의 신앙 고백을 직접 인용하

40) Daveluy 4, f. 64; 『순교사 비망기』, 60.

41) Daveluy 4, ff. 141-142; 『순교사 비망기』, 145.

42) Daveluy 4, f. 90; 『순교사 비망기』, 86-87.

43) Daveluy 4, ff. 83-84; 『순교사 비망기』, 79-80.

면서 순교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황사영이 간략하게 서술한 순교 사실에 대해 다블뤼는 더 확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순교 이후에 나타난 기적 현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가 순교한 장소에 큰 빛이 나타났다는 증언을 언급함으로써 순교를 통해 나온 초자연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sup>44)</sup>

최필제와 오현달의 약전을 서술할 때는 『황사영 백서』에 나온 내용을 누락한 부분도 없으며 새로 추가한 부분도 없다. 하지만 최필공 토마스의 체포 일지는 다르게 나온다. 황사영은 최필공이 12월 17일에 체포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sup>45)</sup> 하지만 다블뤼는 11월에 체포되었다고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서술하였다.<sup>46)</sup>

정약종의 약전을 서술할 때는 『황사영 백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서술하였다. 그가 사별한 부인 사이에 아들인 정철상 가를로를 두었으며 독신을 지키려 했지만 집안의 간청으로 재혼한 사실도 서술하였다.<sup>47)</sup> 정약종의 약전을 마무리하면서 안정복의 『천학문답』에 나온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정약종이 가진 천주교 교리를 비판한 내용이다.<sup>48)</sup> 이를 통해 정약종의 학식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홍교만에 대한 약전을 서술할 때에도 다블뤼는 황사영이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을 확대하였다. 홍교만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한 번도 배교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냉담자들을 권면하고 교인들을 집에 불러 독려한 일들을 서술하였다. 또한 그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 아들인 홍인 레오로부터 강한 자극을 받았음도 추가하여 언급하였다.<sup>49)</sup>

주문모 신부의 순교 과정을 서술하는데 있어 다블뤼는 『황사영 백서』에 나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여기에 나온 기적 현상에 대해서도 그대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순교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조선의 의금부에서 나온 결안을 소개하였다.<sup>50)</sup> 이를 통해 조선의 형벌 체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다블뤼는 김건순의 약전을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에 나온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황사영이 김건순과 김백순에 대해 서술한 분량이 매우 많았기에 다블뤼가 추가할

44) Daveluy 4, f. 114; 『순교사 비망기』 114.

45) 十二月十七日 刑曹差差 捕崔多默拘囚 (『黃嗣永帛書』 22행); 황사영, 『누기 저죄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39.

46) Daveluy 4, f. 95; 『순교사 비망기』 91.

47) Daveluy 4, f. 105; 『순교사 비망기』 102.

48) Daveluy 4, f. 107; 『순교사 비망기』 104-105.

49) Daveluy 4, f. 107; 『순교사 비망기』 105-106.

50) Daveluy 4, f. 127; 『순교사 비망기』 129.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약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 서술하였다. 김건순이 정약종이 공동으로 책을 집필하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으며 그 미완성의 책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sup>51)</sup>

그러면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가 서술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미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블뤼는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해 서술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문헌 자료만 참조한 것이 아닌 신자들을 만나면서 들은 구술 증언 자료들도 비망기 서술에 반영하였다. 백서의 입수를 언급한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59년 9월 서한」에도 신자들의 구술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sup>52)</sup>

구술 증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항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58년 11월 7일자 서한」에도 드러나 있다. 이 편지는 다블뤼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을 발송할 당시에 보낸 편지이다. 여기서 다블뤼는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 수록할 순교자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순교자 역사 전반에 대한 책을 보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로마 교황청 시복시성 수속에 필요한 순교자 약전을 선정하여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약전에 수록할 순교자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수집한 순교자의 명단이 아직 불완전하며 보완할 점이 남아 있다는 고백을 하였다.<sup>53)</sup>

이 편지를 살펴보면 다블뤼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서술과 발송 이후에 만든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만들 때 신자들의 구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서술할 때는 구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블뤼가 『황사영 백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가 서술할 때 나오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황사영이 미처 상세하게 표현하지 않은 순교자들의 열렬한 신앙심과 용기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배교의 유혹을 받았거나 한 번 배교를 했다가 회심한 과정도 더 상세히 서술하였다. 즉 황사영이 미처 다루지 못한 신앙적인 부분을 다블뤼가 조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블뤼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통해 순교자들의 강한 신앙의 모범과 더불어 그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51) Daveluy 4, f. 135; 『순교사 비망기』, 138.

52) Daveluy 6 *Lettres à des membres de la Ste des ME*, f. 6-0058.

53) 김규성, 「다블뤼의 기해박해 서술 연구」, 133.

졌었던 유흥과 시련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기존 연구에는 황사영이 순교와 배교에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순교자 약전 안에 반영하였음을 밝혔다.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 있었던 신자들에 대해 나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분도 하였음을 분석하였다.<sup>54)</sup> 하지만 다블뤼는 황사영이 미처 다루지 못한 상세한 사항을 더 찾아내어 이를 『조선 순교사 비망기』 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황사영이 순교자 약전을 통해 표현하려 했던 순교자에 대한 인식이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황사영이 미처 다루지 못한 순교자 개인의 가족 관계나 신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밝혀 서술하였다. 황사영은 순교자의 행적에 대한 서술을 하였지만 자세한 신앙에 대한 소개는 미흡하였다. 다블뤼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서술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강완숙과 정약종에 대한 서술을 할 때 그러한 면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황사영 백서』의 작성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황사영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측면이 강하다. 비록 김한빈과 황심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추가했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순교자 약전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웠다. 다블뤼는 『황사영 백서』를 인용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가 찾아낸 문헌 혹은 구술 자료를 통해 얻은 사실을 추가 서술하였다. 황사영이 단편적으로 언급하였던 부분을 다블뤼가 상세히 늘려서 『조선 순교사 비망기』 안에 반영하였다.

사실 신유박해 이후 조선 신자들이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신태보 옥중수기와 「신미년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 보낸 편지(이하 신미년 편지)」이다. 『황사영 백서』보다 후대에 나온 자료로 황사영이 언급한 순교자 중 일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다. 신태보 옥중수기는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인용한 바가 있는 자료이고, 신미년 편지는 『황사영 백서』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신태보는 황사영이 언급한 신유박해 순교자 중 주문모 신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런데 황사영이 서술한 내용과는 별도의 이야기가 나온다. 주문모 신부의 유물과 그가 동정부부를 혼인시킨 일화가 나와 있다. 다블뤼는 이 부분을 주문모 신부의 약전 뒷부분에 인용 서술하였다.<sup>55)</sup> 결국 『황사영 백서』의 순교자 약전 부분과 신태보의 수기를 비교할

54) 김수태, 「황사영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사료 재조명」, 186-190.



때 동시에 언급한 순교자는 주문모 신부이지만 서술한 내용은 다르게 나온다.

신미년 편지에는 신유박해 순교자 중 주문모 신부, 강완숙, 윤점혜, 이순이, 최필공, 정약중, 황사영 등 6명에 대한 약전이 나와 있다.<sup>56)</sup> 이 중 황사영이 언급한 순교자는 주문모 신부, 강완숙, 정약중이다. 주문모 신부에 대해서는 ‘이 신부님이 순교하시게 된 경위(李神父致命顛末)’라는 제목으로 약전이 신미년 편지에 나온다. 여기에는 황사영이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주문모 신부의 사목 활동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sup>57)</sup> 순교 과정에 대한 서술은 황사영과 다블뤼의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완숙에 대해서는 ‘강완숙 골롬바에 대한 진실(葛隆巴完淑姜氏事實)’이라는 제목으로 나온다. 여기서는 황사영과 다블뤼의 기록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문모 신부를 집안에 숨겨 주는 데 있어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sup>58)</sup> 한편 그가 가진 열성에 대해서도 앞의 기록보다 더 강조하였다. 정약중에 대해서는 황사영과 다블뤼의 기록보다도 서술 비중이 높지 않다. 그가 『주교요지』를 저술한 사실과 순교한 사실을 중점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순교를 한 순간에 대한 서술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sup>59)</sup>

다블뤼가 신미년 편지를 인용하였다는 정확한 근거는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황사영 백서』와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비교해 볼 때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나 주문모 신부와 강완숙의 경우 더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도 있다. 이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다블뤼는 순교자 자신이 가진 강한 신앙심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추가 서술을 하였다.

다블뤼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작성하면서 『황사영 백서』에 나온 순교자 약전을 인용하였다. 대부분 간접 인용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중요한 부분은 직접 인용하였다. 『황사영 백서』에 없는 내용은 다블뤼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서술한 것이다. 다블뤼가 추가한 내용은 순교자 자신의 강한 신앙심과 이를 지키기 위해 겪었던 유흥과 시련을 비롯하여 순교자의 가족 관계 및 신앙이었다. 황사영이 미처 서술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55) Daveluy 4, f. 130; 『순교사 비망기』 132.; 유소연 편역, 『신태보 옥중수기』 (전주: 흐름, 2016), 60-62.

56) 윤민구, 「신미년(1811년)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연구」, 『논문지』 2(1990), 43-44.

57) 윤민구 편,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0), 221-223.

58) Ibid., 228-233.

59) Ibid., 245-247.

다블뤼는 『황사영 백서』의 내용을 직간접으로 인용 서술하면서도 구술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수집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황사영 백서』 이외에도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한 조선 신자들의 기록으로 신태보 옥중수기와 신미년 편지가 있다. 신태보 옥중수기의 내용은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인용하였다. 신미년 편지의 경우 다블뤼가 인용하였다는 근거는 없지만 다블뤼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순교자 자신이 가진 신앙심을 강조했다는 면이 드러나 있다.

다블뤼는 『기해일기』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온갖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강한 열의와 용기를 강조하였다.<sup>60)</sup> 조선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유럽에 전해져서 조선 천주교회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영적·물질 후원이 더 오기를 바랐다.<sup>61)</sup> 이는 『황사영 백서』의 순교자 약전을 인용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특징이다. 황사영이 미처 서술하지 않은 순교자들의 강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저술하였다. 다블뤼는 이를 유럽에 전함으로써 선교열을 올리려고 하였다.

#### 4. 맺음말

『황사영 백서』는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조선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적을 지닌 서한이기에 형식상으로는 순교록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헌은 48.5% 정도의 분량이 순교자들의 약전이며 당대 조선 신자가 박해 상황을 서술한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서의 성격을 가진 자료이면서도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다블뤼는 신유박해 당시 순교자들의 약전을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에 나온 순교자 약전의 내용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였다. 17건의 인용 사례 중 4건은 직접 인용하였으며, 5건은 간접 인용한 가운데 일부 내용만 직접 인용하였다. 다블뤼는 조선 교회 신자 측이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해 기록한 거의 유일한 약전의 형태를 지닌 『황사영 백서』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는 비록 원본을 입수하지 못했지만 『동린록(東麟錄)』 소재 「사적 사영백서」로 추정할 수 있는 이본 형태의 문서를 접하였다. 한편으로 이본 형태의 백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어 번역본도 활용하여 『조선

60) 김규성, 「다블뤼의 기해박해 서술 연구」, 154.

61) Ibid., 129.

순교사 비망기』의 신유박해 순교자 서술에 참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측 관찬 기록인 결안(結案) 안에 있는 일부 내용도 참조한 것으로 추측한다.

다블뤼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작성하면서 『황사영 백서』를 통해 인용 서술한 순교자 수는 14명이다. 비록 신유박해 전체 순교자 수에 비한다면 적은 수이지만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순교자들이 들어가 있다. 다블뤼는 황사영의 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간접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 얻은 이야기도 일부 추가하여 서술하였다. 다블뤼가 추가한 내용은 순교자 자신의 강한 신앙심과 이를 지키기 위해 겪었던 유혹과 시련을 비롯하여 순교자의 가족 관계 및 신앙이었다. 황사영이 미처 서술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사실 『황사영 백서』의 작성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황사영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측면이 강하다. 다블뤼는 황사영이 남긴 순교자 자료를 인용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는 직접 찾은 구술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수집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물론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한 조선 신자들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중 신태보 옥중수기와 신미년 편지가 있다. 신태보 옥중수기의 내용은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인용하였다. 신미년 편지의 내용은 다블뤼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순교자 자신이 가진 신앙심을 강조한 것이다. 다블뤼는 황사영이 미처 서술하지 않은 순교자들의 강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서술하였다. 그는 이를 유럽에 전함으로써 선교열을 올리려고 하였다.

다블뤼가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를 비롯한 조선 신자들의 기록만을 인용하지 않았다. 천주교를 박해한 조선 정부 측 기록과 천주교를 반대한 이들의 기록도 참조하고 인용하였다. 그리고 순교자에 대한 약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순이 루갈다의 편지와 같은 개인적인 서한 자료도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신자들의 신유박해 순교자 기록 중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황사영 백서』를 먼저 살펴보았으며 순교자 약전이 일부 들어간 조선 신자들의 기록도 일부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문헌들과 다블뤼 주교의 기록과의 비교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을 것이다. 또한 다블뤼 주교와 마찬가지로 박해시대 조선에서 활동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조선인 사제들의 교회사 인식과의 비교 작업도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黃嗣永帛書』, 김영수 옮김, 서울: 황석두루가서원, 1999.
- 『A-MEP, Vol. 577 Corée 1797-1860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서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10.
- A-MEP(Archiv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Mgr Daveluy Vol. 4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문화위원회, 2012.
- \_\_\_\_\_, *Vol. 5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 『조선 순교자 약전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문화위원회, 2012.
- \_\_\_\_\_, *Vol. 6 Lettres à des membres de la Ste des ME*. (내포교회사연구소 판독본)
- \_\_\_\_\_, *Vol. 8 Lettres à sa famille après son entrée en Corée*. (내포교회사연구소 판독본)
- Dallet, Charles,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1, Paris: Librairie Victor Palme, 1874.

### 2. 단행본 및 번역본

- Dallet, Charles, 『한국천주교회사 상』, 안응렬·최석우 옮김,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 Daveluy, Antoine,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유소연 옮김, 당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 \_\_\_\_\_,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유소연 옮김, 당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 여진천, 『황사영 백서 연구: 원본과 이본 비교 검토』,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 여진천 편, 『황사영 백서와 이본』, 서울: 국학자료원, 2003.
- 유소연 편역, 『신태보 옥중수기』, 전주: 흐름, 2016.
- 윤민구 편,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0.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2』,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 황사영,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진천 옮김, 서울: 기쁜소식, 1999.

### 3. 논문류

-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 \_\_\_\_\_, 「다블뤼의 기해박해 서술 연구: 기해일기 보완 작업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3(2018, 12), 121-161.
- 김수태, 「황사영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사료 재조명」, 『황사영의 신앙과 영성』,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131-193.
- \_\_\_\_\_, 「최양업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연구」, 『교회사학』 10(2012, 12), 87-120.
- 김정숙, 「신유박해에 관한 프랑스어 자료 분석」, 『신유박해 연구의 방법과 사료』,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331-440.
- 여진천, 「황사영 백서 이본에 대한 연구」, 『교회사연구』 28(2007, 6), 5-29.
- 윤민구, 「신미년(1811년)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연구」, 『논문지』 2(1990), 2-35.
- 정두희, 「황사영 백서의 사료적 성격」, 『신유박해와 황사영 백서사건』,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11-34.
- 조현범, 「황사영 백서 불역본에 관한 연구」, 『교회사학』 12(2015, 12), 213-245.
- 최석우, 「달레저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과정」, 『교회사연구』 3(1981), 113-159.
- \_\_\_\_\_, 「다블뤼 주교의 ‘한국 주요 순교자 약전’에 대한 검토」, 『한국교회사의 탐구 II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114-128.

## 다블뤼의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나온 『황사영 백서』 순교자 약전 인용 연구

김규성

『황사영 백서』는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조선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서한이기에 그 자체를 순교자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헌의 절반 이상 분량이 순교자들의 약전이기에 순교자 관련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블뤼는 신유박해 당시 순교자들의 약전을 서술하면서 『황사영 백서』를 인용하였다. 17건의 인용 사례 중 4건은 직접 인용하였으며, 5건은 간접 인용한 가운데 일부 내용만 직접 인용하였다. 다블뤼는 조선 교회 신자 측이 신유박해 순교자에 대해 기록한 거의 유일한 약전의 형태를 지닌 이 문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였다. 비록 원본을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이본 형태의 문서를 입수하고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선 순교사 비망기』의 신유박해 순교자 서술에 참조하였다.

다블뤼가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작성하면서 『황사영 백서』를 통해 인용 서술한 순교자 수는 14명이다. 비록 신유박해 전체 순교자 수에 비한다면 적은 수이지만 교회사적인 비중을 따져 볼 때 주요 순교자들이 들어가 있다. 다블뤼는 황사영의 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하였으나 간접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 얻은 이야기도 일부 추가하여 서술하였다. 다블뤼가 추가한 내용은 순교자 자신의 강한 신앙심과 이를 지키기 위해 겪었던 유혹과 시련을 비롯하여 순교자의 가족 관계 및 신앙이었다. 황사영이 미처 서술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다블뤼는 황사영이 남긴 순교자 자료를 인용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그가 찾아낸 구술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수집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주제어:** 교회사, 한국천주교회사, 황사영 백서, 다블뤼, 신유박해, 조선 순교사 비망기

A Study on the Citation of Martyr Biography in Silk Letter of *Hwang Sayeong* in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by Daveluy

Kim, Gyu-Seong

Silk Letter of *Hwang Sa-yeong* is a letter aimed at informing Bishop *Gouvea* of *Beijing* on the persecution against Catholicism in Korea and asking for help.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e the document as a martyr's material.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se documents are biography of martyrs, so they have value as martyr-related data. Daveluy quoted *Hwang Sa-yeong*'s record while describing the biography of the martyrs during 1801's persecution. Of the seventeen citation cases, four were directly cited. And among the indirect citations, only five of them were directly cited. Daveluy paid attention to the historical value of this document, which has the almost unique form of biography that the believers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recorded about the martyrs. Although the original was not available, this type of document was obtained and utilized. This was referred to in the description on martyrs of 1801's persecution in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The number of martyrs quoted in Silk Letter of *Hwang Sa-yeong* was fourteen, when Daveluy wrote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Although it is a small number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martyrs who persecuted in 1801, there are major martyrs in terms of church history. He described faithfully the data of *Hwang Sa-yeong*, but when it was indirectly cited, some stories obtained through other materials were also added. His additions were to the martyr's own strong faith and the

temptations and trials he had to defend, as well as the martyr's family relations and personality. It is a supplement to the part that *Hwang Sa-yeong* did not describe. Daveluy cited the martyr's data left by *Hwang Sa-yeong*, while quoting the relatively detailed description as it was, and utilized a variety of collected materials, including oral information he found.

**Key Words:** the Church History, the Korean Catholic Church History, Silk Letter of *Hwang Sayeong*, Daveluy, 1801's persecution,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 de Corée*

---

논문 투고일	2020년 3월 31일
논문 수정일	2020년 5월 10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

---